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간호학박사 학위논문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김 효 정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지도교수 정 재 원

이 논문을 간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김 효 정

김효정의 간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김 혜 원 (인)

부 위 원 장 채 선 미 (인)

위 원 고 진 강 (인)

위 원 이 숙 정 (인)

위 원 정 재 원 (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by

Kim Hyo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2016

Doctoral Thesis Committee:

Professor	Kim, Hae Won	Chairperson
Professor	Chae, Sun-Mi	Vice Chaiperson
Professor	Koh, Chin-Kang	
Professor	Lee, Suk Jeong	
Professor	Chung, Chae We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용하여 여자대학생 음주행위 설명 모형을 구축하였다.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외생변수는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였고, 내생변수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음주행위로 구성하였다.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가설적 구조모형은 총 8개의 변수와 10개의 측정변수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으로 현재 음주를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16부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여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와 음주총점이 0점인 17부를 제외한 385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서울 시내 소재하는 총 12개의 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학교 커뮤니티에 설문링크로 연결되는 글을 게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총 20개의 경로 중 13개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df =2.585, GFI =.972, AGFI =.929, RMSEA =.063, NFI =.804, CFI =.858, PGFI =.389, PNFI =.393, PCFI =.419으로 7개의 적합지수는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2개의 적합지수는 .80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어 모형이 타당성을

갖추었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외생변수인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와 내생변수인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에 대하여 41.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음주동기와 음주결과기대,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행위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었고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는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이 음주동기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 생활사건 스트레스에서 음주결과기대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 여성성에서 음주결과기대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동기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결과기대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 스트레스, 여성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함께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절주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여성성 특성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인 대학 음주문화가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캠퍼스 내에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여자대학생, 음주행위, 사회학습이론, 구조모형

학 번: 2014-30136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용어의 정의 ····· 5

II. 문헌고찰 ····· 10

1. 여자대학생의 음주실태 ····· 10

2.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관련요인 ····· 14

3.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 ····· 34

III. 이론적 기틀 ····· 36

1. 이론적 배경 ····· 36

2. 연구의 기틀 ····· 42

3. 가설적 모형 ····· 45

4. 연구 가설 ····· 49

IV. 연구 방법 ····· 51

1. 연구 설계 ····· 51

2. 연구 대상 ····· 51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 52

4. 연구 도구 ····· 53
5. 자료수집 절차 ····· 60
6. 자료분석 방법 ····· 61

V. 연구 결과 ····· 62
1. 대상자의 특성 ····· 62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 67
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 69
4.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분석 ····· 72
5. 연구가설 검증 ····· 78

VI. 논 의 ····· 83
1.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적합성 ····· 83
2. 여자대학생의 음주 관련 특성 ····· 85
3.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고찰 ····· 88
4.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 99
5. 연구의 제한점 ····· 101

VII. 결론 및 제언 ····· 102

참고문헌 ····· 105

부 록 ····· 121

Abstract ····· 137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 64
Table 2.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6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 68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 71
Table 5. Model Fit of the Hypothetical Model ····· 74
Table 6.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 75
Table 7.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 76

List of Figures

Figure 1.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 43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 47
Figure 3. Final Model of This Study ····· 82

List of Appendixes

부록 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 121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 122
부록 3. 설문지 ····· 1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행사나 모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음주를 즐기는 편으로 음주에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여성의 경우 하루에 2잔 이하를 저위험 음주(“low-risk” drinking)라 하였는데 이러한 음주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폭력 등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자료(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음주율은 5년 전인 2010년보다 2.6% 떨어져 75.2%를 나타내었고, 여성의 음주율은 3.2% 올라 46.5%를 나타내었다. 남성과 여성의 음주율 차이는 2010년에 비하여 5.8% 줄어 28.7%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여성의 음주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월간음주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4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여성의 경우 젊은 층에서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한 고위험음주 증가율은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높았다(서울 통계, 2014).

여성 음주자 중에서도 특히 여자대학생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달 동안 음주를 한 경우가 77.5%였고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에 해당하는 7~9잔을 마시는 경우는 18.8%, 10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도 16.4%에 이르렀다(류현숙과 백민자, 2012). 도은영, 김연화와 김정화(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대학생이 한자리에서 7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이 34.9%로 이는 여성직장인의 약 5배, 주부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여자대학생의 11%는 음주 전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심에도 불구하고(곽정옥과 김영복, 1997), 이들의 음주에 대해서 사회에서조차 관용적인 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음주량은 적지만 취하는 빈도는 더 높으며(정슬기, 2007), 음주를 시작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양승희와 한금선, 2003). 또한 여성은 생리적으로 체내에 수분에 비하여 지방의 비율이 높아 남성과 동일한 양의 음주를 하여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2015). 여성의 과도한 음주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생리불순, 조기폐경, 불임,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생식기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NIAAA, 2003). 과도한 음주는 성폭력, 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한 여자대학생이 9.8%에 이르렀으며(이경희, 2004), 일주일에 술을 한 번 이상 마시는 대학생은 데이트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서경현, 2003).

이렇듯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6.3%의 여성이 술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2%의 여성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술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양승희, 2006).

또한 여자대학생의 97.5%는 젊은 여성의 음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주 마셔도 좋다'라고 응답한 여자대학생은 9.3%에 이르렀다(고영태, 1995). 이렇듯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 음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여자대학생들이 여성의 음주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음주행위도 과도한 음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의 음주에도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은 여성 음주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음주행위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며 여자대학생도 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음주문화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대학생은 높은 음주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여러 가지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음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음주를 처음 접하거나 시작하는 단계로 음주습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음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음주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과도한 음주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적인 관점으로 음주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음주행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음주행위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살펴본 논문은 거의 없었으며,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편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음주행위는 어느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문화, 인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영복와 박중규, 2015).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는 음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이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주행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데(한소영, 이민규와 신희천, 2005), 성별을 변수로 구분하는 것보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행위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환경적, 인지적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과도한 음주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여자대학생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접근방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과도한 음주행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은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조사하여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 및 설명력을

규명한다.

3) 가설모형과 실제 자료의 부합도 검정을 통해 여자대학생의 음주 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음주행위

◆ 이론적 정의: 음주행위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행동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음주행위는 음주 패턴, 음주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위험음주: 해로운 결과를 증가시키는 알코올 섭취 패턴을 뜻한다.

-의존음주: 반복되는 알코올 섭취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행위적, 인지적, 생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유해음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알코올 섭취를 뜻한다.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HO에서 초기 문제음주자 확인을 위해 개발한 알코올 측정도구인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우리나라 대상자에 맞게 이병욱 등(2000)이 구성한 AUDIT-K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음주동기

- 이론적 정의: 음주동기는 알코올 사용에 이르는 마지막 공통된 통로이며(Cox & Klinger, 1988), 음주의 이유라 할 수 있다(Copper, 1994).
- 조작적 정의: 음주동기는 신행우(1998)가 대학생으로부터 조사한 언어보고 자료와 Cooper(1994)의 동조동기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음주동기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 사교, 대처, 동조의 4가지의 음주 동기 중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인 대처동기 항목만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동기로 술을 마실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음주결과기대

- 이론적 정의: 음주결과기대는 알코올을 섭취의 신체적, 심리적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다(Heather & Sherry, 2001).
- 조작적 정의: 김석도(2000)가 Alcohol Expectancy Scale(Leigh & Stacy, 1993)을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긍정적 음주결과기대 중 긍정적 음주결과기대만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뜻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다.

4)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 이론적 정의: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Oei & Morawska, 200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Aas 등 (1995)이 개발한 자기효능 척도를 조희(199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다.

5) 우울

- 이론적 정의: 우울은 슬픔, 외로움 등의 기분 상태, 자기 비난과 자책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 불면증과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적 증상, 활동 수준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상태를 뜻한다(Beck, 1967).
- 조작적 정의: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만든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6) 생활사건 스트레스

- 이론적 정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사건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있어 적응이 필요한 사건을 생활사건이라 하는데, 이러한 생활사건에 대한 비특이적 반응 즉, 평형상태의 변화를 뜻한다(Selye, 1956).
- 조작적 정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Holmes 와 Rahe (1967)의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을 기반으로 이평숙(1984)이 제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7) 여성성

- 이론적 정의: 여성성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 '여성다움'에 대한 자기 지각을 의미한다(Kagan, 1964).
- 조작적 정의: Spence와 Helmreich (1978)가 개발한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정선영(2003)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AQ는 성역할 정체감 도구로 여성성과 남성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분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성향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원도구 중 여성성 요인 13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8) 대학 음주문화

- 이론적 정의: 대학 음주문화는 Ames와 Grube (1999)의 직장음주문화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대학이라는 하위집단 내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 및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에 대한 가치, 태도, 기대 등을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김재훈(2005)이 만든 직장 내 음주문화 도구를 대학교 상황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내에서 음주에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고찰을 하였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음주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여자대학생의 음주실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여자대학생의 음주 실태와 여자대학생의 음주가 증가하는 이유, 음주관련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여자대학생의 음주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이원재, 2001; 조성기, 2001). 여성의 음주율 증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별 구분 없이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음주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음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음주는 예방이 필요하다.

여자대학생의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여자대학생의 25.7%가 고위험 음주군이며 4.2%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었다(양승희와 윤지원, 2015). 여대생 10명 중 9명은 한 달에 1번 이상 술을 마시며,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이상인 비율은 11.5%였다(손애리, 2014). 여자대학생의 음주를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여자대학생의 음주율은 높게 나타났는데, 한 달에 2~3회 음주를 하는 여자대학생이 29.5%나 되었고 매일 마시는 경우도 2.7%에 이르렀다(류현숙과 백민자, 2012). 음주량은 한 번에 7~9잔을 마시는 경우가 18.8%로 가장 많았고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16.4%였다. 대학생의 음주실태를 연구한 백수진(2015)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음주수준을 정상음주, 위험음주, 알코올의존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위험음주 그룹에서 여학생의 비율(58.5%)이 남학생의 비율(41.5%)보다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 그룹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여자대학생의 위험음주, 알코올 의존 수준이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자대학생의 음주 수준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지현의 연구보고서(2011)에 따른 대학생과 성인의 음주행태를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성인과 대학생의 음주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자의 경우 대학생의 음주율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간 음주율의 경우 여자대학생은 82.6%, 성인 여성은 66.3%를 나타내 여자대학생의 음주율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코올 사용 장애 측정도구인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여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남자의 경우 문제음주에 해당하는 8점 이상에서 남자대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16점 이상에서는 성인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8점 이상과 16점 이상 모두에서 여자대학생이 성인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수준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하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는 남자대학생과는 독립적으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많은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은 대인관계를 위한 사교적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임선영, 조현섭과 이영호, 2005).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도 이와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대학생이 과음을 하는 이유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36.8%, '사람이 권할 때' 28.3%,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21.5%의 순이었고 남자대학생들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32.8%, '나쁜 일이 있을 때' 22.9%, '사람들이 권할 때' 22.6% 음주를 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원재, 2001). 즉, 남자대학생은 기분이 좋을 때 과음을 한다고 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반면, 여자대학생은 이와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 과음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학과나 대학생활에 불만족할수록 고위험 음주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양승희와 윤지원, 2015).

여자대학생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로 인한 성역할의 변화는 여성의 음주기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것은 여자대학생의 음주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장승옥(2006)은 대학생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요인으로 자유시간이 늘어났지만 시간 관리나 또래압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성인들의 감독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위험한 음주행위에 동참하게 된 점을 들었다. 또한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활동과 같은 잦은 술자리를 접하면서 대학시절에 과음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

생활에서 음주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여자대학생의 과도한 음주는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는 간질환, 소화기질환, 알코올성 치매,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여성은 체내의 수분과 지방의 비율이 남성과 달라 동일한 음주량일지라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같은 양의 음주를 하여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NIAAA, 2015) 빨리 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임기 여성의 음주율 증가는 태아에게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보건복지부, 2010)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음주 상황에서 성폭행, 계획하지 않은 성행동이 남녀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NIAAA, 2003), 여자대학생의 48.9%가 음주 후 원치 않는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여자대학생의 성추행 경험은 7.3%로 남자대학생의 2.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박종순, 2000).

2.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관련요인

1) 음주동기

행위란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을 뜻하며, 김석주(1993)는 사람이 갖는 욕구를 전제로 하여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이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행동이라 하였다. 즉 결핍된 상태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면 행위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동기라 할 수 있으며 동기는 특정 행동의 선행요건과 행동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중개요인이라 할 수 있다(정원식, 2001).

따라서 음주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 행위가 일어나는 계기인 음주동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주동기는 술을 마시도록 하는 자각적인 이유로 음주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정다희, 2005). 음주와 관련된 여러 요인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음주동기는 음주행위에의 마지막 공통된 통로라 할 수 있다(Cox & Klinger, 1988). 이러한 음주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음주 패턴과 음주문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정다희, 2005).

음주동기는 긍정, 부정 강화와 내적, 외적 원천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Cox & Klinger, 1988) 추후 Cooper (1994)가 4가지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음주동기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음주를 할 수 있다. 즉,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거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음주를 할 수 있고 또는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인 기분 상태를 피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음주를 하지 않음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의 감정상태의 조절과 같은 내적 보상 또는 사회적 수용과 같은 외적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4가지 유형의 음주 동기 중 첫 번째 음주동기는 고양동기로 긍정적인 기분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내적 긍정적 강화 동기이고 두 번째는 사교동기로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위해 음주를 하는 외적 긍정적 강화 동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처동기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한 내적 부정적 강화 동기이며 마지막은 동조동기로 사회적 거절을 피하기 위한 외적 부정적 강화 동기라 할 수 있다.

4가지의 음주동기 모두 음주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동기가 강할수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는 음주횟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술을 마실수록 자주 마시는 양상을 보였다(정다희, 2005).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동기는 음주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강미경과 김인경, 2014). 또한 음주동기는 문제음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음주 대학생과 문제음주 대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문제음주 대학생이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 대처동기 모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복과 박중규, 2015). 또한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로 음주하는 일이 반복

되는 경우 개인은 점차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용석, 2000).

이렇듯 음주동기는 음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진규, 김종성, 김종임과 김경희(2010)는 남자대학생은 음주동기 외에도 사회적 요인이 음주에 많은 영향을 주는 반면, 여자대학생은 음주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이 음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진규 등, 2010). 문헌고찰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Ptacek, Smith, & Dodge, 1994),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동기로 술을 마실 경우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 정서 때문에 음주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폭음을 할 수 있으며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신행우, 1999).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처동기로 술을 마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서경현, 2003).

음주의 대처동기와 음주문제간의 관계는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김용석, 2000), 남자대학생보다는 여자대학생이 대처동기를 가지고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동기로 음주를 하는 여자대학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우울의 비율이 높고(박광희, 2008) 문제 상황에서 음주나 약물을 이용하는 등 정서적 대처를 한다는 결과(Ptacek et al., 1994)를 보았을 때 대처동기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함이므로 이들의 음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처동기를 이용하여 음주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음주결과기대

음주결과기대는 술을 마시게 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도은영 등, 2009). 사회학습이론에서 결과기대란 특정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Bandura, 1977), 음주결과기대는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다(Heather & Sherry, 2001). 과거 음주 경험이나 대리 학습을 통하여 음주를 하면 특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이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쳐 음주를 하게 된다(조희, 1999). 예를 들어, 과거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했을 때 기분이 나아지는 경험을 했다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과거의 경험이 기대라는 심리로 작용하여 음주행위를 하게 된다.

음주결과기대에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가 있다.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중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Bandura, 1986),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주의 긍정적 기대를 사용하여 음주행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서경현과 조은희,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음주결과기대만을 사용하여 음주의 예측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학자에 따라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였는데 Brown, Goldman과 Christiansen (1985)은 개인 경험의 긍정적 전환, 사회적 신체적 즐

거움의 증가, 성적인 능력 향상, 공격성의 증가, 사회적 주장의 향상, 긴장의 감소의 6가지를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로 제시하였다. Leigh와 Stacy (1993)는 긍정적 음주결과기대를 사회적 조장, 재미, 성, 긴장완화의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음주기대는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을 모델링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고 음주기대와 가족력, 대중매체, 음주경험, 연령, 성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과 윤혜미, 2001).

음주결과기대와 음주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음주기대는 음주를 지속되고(유경희, 1998), 음주결과기대는 음주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정진규 등, 2010). 강한 긍정적 기대를 갖는 사람이 더 과도한 음주를 하며 알코올 관련 문제를 더 경험하였고(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문제음주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김정애, 2014). 대학생의 경우에도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관련 문제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김의숙, 2002). 한편, 음주경험과 음주기대를 연구한 논문에서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음주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음주기대가 낮았다. 즉,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음주행위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기대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김용석과 윤혜미, 2001).

음주기대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Wiers et al., 1997).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은 음주를 통하여 사교성이 향상된다는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긴장 감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기

능 향상에 대한 기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장인경, 2003). 도은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기대가 다른 연령대의 여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대학생과 여성 직장인, 주부의 음주기대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여자대학생의 음주기대가 여성 직장인, 주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사교적이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쉬워진다', '감정을 표현하기 쉬워진다', '평상시에 못하던 말을 할 수 있다'의 순으로 높은 음주기대를 나타내어, 여자대학생은 음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편하게 어울리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음주와 음주결과기대에서 더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어(정진규 등, 2010), 여자대학생에게 있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음주행위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 내용과 음주결과기대는 중재를 통해 수정 가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3)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효능감은 인간 유능성의 생성체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에 처한 동일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의 정도에 따라 특별히 더 잘 하거나 못할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과 양계민, 1999). 즉 자기 자신의 효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의 정도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

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변창진과 김경린, 2002).

건강증진모형이나 계획된 행위 이론과 같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개념이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인용되는 사회학습이론에서도 행위 단계 직전에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이다(Bandura, 1986). 또한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데(구미옥, 1994), 자기효능감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거나 사회적 모델링을 통해서 획득되기도 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김윤정, 2011).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주행위와 관련해서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연구되어 왔는데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음주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측요인이며(Oei & Morawska, 2004), 음주 상황에서 실제적인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희, 1999). 특히 우리나라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교적 음주가 많은 편으로 직장이나 대학과 같이 음주에 관대한 하위문화 속에서 개인이 음주를 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이미형과 이영자, 2000) 이것이 부족할 경우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 상황에서 술을 거절하

기가 어려워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되며(김명숙과 김명희, 2009),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량과 관련이 있었다(Oei & Burrow, 2000). Hasking과 Oei (2002)의 연구에서도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량과 횟수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술을 마심으로써 사회성 향상, 긴장 감소와 같은 심리적 이익을 많이 경험하는 것과 낮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Skutle, 1999). 즉, 음주행위를 통하여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여러 번 경험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음주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음주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4) 우울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2014)에 따르면 우울 장애 유병률이 70대 이상의 연령층(11.2%) 다음으로 20대(8.2%)에서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우울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우울 성향이 더 강했고(김상옥과 전영자, 2013; 이경희. 2011), 미혼 여성의 우울정도를 정상군과 우울군으로 나누었을 때 우울군이 65.7%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여성의 우울 정도가 높았다(김계하, 2001).

한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54.1%가 우울한 증상을 나타내어 과반수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이경숙 등,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남자대학생의 32%, 여자대학생의 43.6%가 우울 증상이 있었고 중증 이상의 우울은 남자대학생이 15.6%, 여자대학생이 18.4%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그 정도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박광희, 2008). 우울과 음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는 주로 Conger (1956)의 긴장 감소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는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서 긴장이란 우울, 불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박경민, 2005). 즉, 긴장 감소 이론에 따르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없애고자 음주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우울과 음주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Brady와 Randall (1999)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의 남녀 성차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과 알코올 사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밝혔다. 알코올 중독 여성은 알코올 중독 남성에 비하여 우울과 불안 장애가 높으며 2-3배 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또한 우울 증상이 치료되지 않은 여성은 이러한 우울 증상이 만성적인 음주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에서도 우울은 음주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음주행동에 대한 우울의 단순회귀 결과에서도 우울은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문인수, 2009).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서 우울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으며(백복녀, 2003) 우울과 음주의 관련성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한소영 등, 2005). 이는 정슬기(2007)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남녀 대학생 비교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에서만 우울이 문제음주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어 우울은 남자대학생과는 다르게 여자대학생의 음주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자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직장여성의 우울에 따른 음주를 비교한 연구(김옥수와

김계하, 2001)에서 여자대학생과 직장여성의 우울 평균 점수는 각 19.27과 20.34로 비슷하였고, 우울군에 속하는 비율도 각 63.9%, 66.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우울 수준에도 불구하고 직장여성은 우울과 음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대학생은 우울과 음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대학생은 직장여성에 비하여 우울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한되어 있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주를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음주의 관계는 남자대학생, 직장여성과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여자대학생의 음주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울과 음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고 남녀대학생을 함께 보거나(이은숙과 봉은주, 2014) 단순히 우울에서 음주로의 영향력을 살펴본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우울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우울이 음주행위에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5) 생활사건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긴장감소이론(Conger, 1956),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을 통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란 평형상태의 변화가 올 때 경험하게 되는데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Holmes와 Rahe (1967)는 재적응해야 하는 갑작스러

운 변화를 스트레스원으로 지적하였는데 대학생활은 학업, 교우 관계,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재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남진열, 2008; 송남옥, 2004)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적인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유계숙과 신동우, 2013) 스트레스 상황이 음주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절주대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여 자신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모든 사건을 생활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러한 생활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생활사건 스트레스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며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유발하는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김혜원, 2006). 인간은 평생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통, 현기증, 근육통, 소화 장애 등 신체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문경숙, 2002). 대학생들은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에서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녀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음주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자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주변에 의해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문제음주, 알코올 섭취의 증가가 관련이 있었다(O'hare & Sherrer, 2008). 김윤배(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았고,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자대학생은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았고 여자대학생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았으나 당면과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주문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김의숙(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고 음주문제 또한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관련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친구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하여 음주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음주결과기대는 음주량을 증가시켰다.

여러 문헌고찰을 통하여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여자대학생은 자아실현과 같은 발달과업을 달성해야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 불안한 미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박혜숙과 김애정, 2008). 양승희와 한금선(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은 '편안해지기 위하여',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와 같

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대학생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평가 정도가 민감하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 행위를 많이 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남자대학생은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자대학생은 정서 중심의 대처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유계숙과 신동우, 2013), 여자대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를 통한 정서 중심 대처(Folkman & Lazarus, 1980)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정서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크다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자대학생이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음주행위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헌고찰 내용으로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반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주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6) 여성성

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성별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

해서도 생길 수 있다(한소영 등,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지닌 여성성이 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 차이는 인간이 행위를 행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유로 고려되어 왔으며, 여러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음주행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생물학적, 정신적 요소를 강조해 왔다(Holmila & Raitasalo, 2005). 하지만 행위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차이인 젠더, 성역할 정체감 등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에 동일시하면서 개인은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정경연, 김홍석과 이정희, 2012) 이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포함하는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이 얼마나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지녔다고 보는가를 의미한다(Kagan, 1964).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에 대한 자기지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성희(2001)은 성역할 정체감을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 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사회는 개인이 성역할에 맞게 행동하도록 기대하고, 개인은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성역할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한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답게 혹은 남성답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음주행위를 포함한 건강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음주나 흡연과 같은 물질남용은 남성성과 연관지어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 여성성과 물질 남용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즉, 본인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한 음주행위를 한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스러운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음주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Iwamoto, Grivel, Cheng, Clinton, & Kaya, 2016). 여성성이란 여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여성과 관련된 태도, 행위, 역할, 기대를 뜻한다(Mahalik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적이라는 의미는 이타적, 공감적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동적, 연약함, 의지적 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다소 선호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Kaya 등(2016)은 이러한 여성성이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성 성역할에 대한 중압감은 대처 수단으로써의 물질남용의 동기가 될 수 있다(Efthim, Kenny, & Mahalik, 2001).

여성성과 물질남용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74%의 연구에서 여성성과 물질남용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중 52%의 연구에서는 여성성이 알코올 사용에 유해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Brady et al., 2016). 국내 연구에서도 전통적 여성성 역할을 내면화 하고 있는 여성은 과도한 음주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하지선, 2009). 또한 여성 알코올중독자군과 정상여성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군에서 여성성 정체감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 여성이 내성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알코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선영, 2003). 김성재(2006)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알코올중독여성의 경험세계를 연구한 질적 연구에서는 '순종하는 착한 여자아이', '술병 뒤에 숨은 현모양처', '희생과 인내의 본보기인 어머니', 등의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여성은 여성성 정체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을 변수로 사용하여 여성성이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7) 대학 음주문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주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행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하위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며, 이는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을 안내하거나 제한한다. 문화는 나라, 지역, 집단마다 다르며 이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김윤정, 2011). 권구영(2004)은 문화는 특정한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하고 이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속한 공식적 환경 속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구조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특정 집단에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행위는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대

학이라는 문화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환경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한다. 즉, 개인이 속한 문화, 배경 등의 환경적 요소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지각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인지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김윤정, 2011).

이러한 환경, 문화적 요소를 음주행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음주행동과 관련된 가치와 기대를 포함한 음주에 대한 일련의 이해를 음주문화라 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음주에 허용적인 문화를 가졌다면 주변에서 음주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음주 광경을 자주 목격하거나 음주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하며 음주에 대한 강압이 있을 수 있고 음주 후 실수에 허용적일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음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정슬기, 2006). 즉, 인간은 사회와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대학생은 대학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음주행위 또한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 처음 음주를 시작하는 공간인 대학 내 음주문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음주행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으며 술자리에서 다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박용주, 1999). 이렇게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

고 관대한 문화권에서 음주문제도 더 많이 발생한다(윤혜미, 2000). 또한 한국인은 만취하는 경향이 있고 음주가 집단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로 술을 마시고 술을 강요하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박영숙, 표미자와 김정선, 1995). 이러한 음주문화는 대학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이 속한 대학 내의 음주 분위기가 음주에 허용적이고 관대하며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경우 개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음주문화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음주문화는 성별에 상관없이 여자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음주문화는 여자대학생에 특이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여자대학생의 음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하루의 대부분을 주변 선배, 친구들과 함께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음주문화는 과도한 음주행위도 용납되는 편이며 대학 내에서 형성된 음주습관과 행태가 선배에서 후배에게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대학 신입생은 신입생환영회에서 술을 접하게 되며 이때 대학 내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형태대로 음주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입생 때 경험한 사발식을 자신이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에게 그대로 되물림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학 내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는 음주문화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음주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음주율이 66.4%였으며

원샷을 강요당한 경험이 남녀 각각 61.5%, 61.9%를 차지했고, 이는 주로 선후배들간의 친목 모임시 경험하며, 그 외 신입생 환영회, MT, 동아리 활동 후, 축제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음주를 강요한 사람은 선배로 인한 억지 음주가 66.3%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동료에 의한 억지음주가 38.3%에 이르렀다(천성수, 이주열, 이용표와 박종순, 2001). 김광환, 김용하, 노상균과 김지희(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자대학생의 29.7%, 여자대학생의 23.5%에서 원치 않은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한 달에 1-2회 이상이라고 답하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권유나 강요에 의한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음주를 하는 시기는 신입생 환영회가 40.7%로 가장 많았고 MT에서가 24.0%, 동아리 활동이 22.1%를 차지하였다. 음주를 강요하는 사람은 선배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가 4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내의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만연하며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의 모임에서 음주를 권유받거나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있는 음주에 대한 태도, 분위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음주에 얼마나 허용적인가에 대한 것으로 대학사회가 음주에 허용적이고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 대학생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교 내에서 음주에 관대한 환경이면 대학생은 더 과도하게 음주를 한다(Perkins & Wechsler, 1996). 또한 정슬기(2006)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과음이나 폭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는 청소년에게 음주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음주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상과 같이 대학 내의 음주문화와 음주행위 관련 문헌을 고찰해 보았는데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중 이제현(2013)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음주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데 여자대학생들 중 31.4%가 강요에 의해 술을 마시며 69%의 여자대학생이 주변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여자대학생이 대학 음주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와 같이 개인의 행위는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학 음주문화를 음주의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 등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변수는 음주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또는 특정 변수를 매개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우선 우울과 인지적 매개 변수인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는 음주동기를 통해 음주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신원우와 유채영, 2007; 정주리, 김은영, 이유정, 최승애와 김정기, 2015). 즉, 기분이 우울할 때 음주를 통해 우울감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의미로 우울이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음주결과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조희, 1999). 또한 Cooper, Russell과 Frone (1990)은 긴장하거나 우울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을 마심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음주결과기대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andura, 1997). 즉, 우울, 불안,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상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행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박경민과 이민규(200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음주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결과기대는 스트레스와 함께 작용하여 음주량에 영향을 미쳤는데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때 음주결과기대는 음주량을 증가시켰다(김의숙, 2002).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음주 기대와 같은 매개 요인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성은 자신이 스스로 여성답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관련이 있었다(Kulis et al., 2008). 또한 직장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성을 지닌 여성이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이는 반면, 여성성 성향을 지닌 여성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어(최미이, 2000), 여성성이 음주행위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 음주문화와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사회학습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나 친구, 대중매체, 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을 매개하여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대학 음주문화가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III. 이론적 기틀

1.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 문제행동이론, 긴장감소이론,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등이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중심으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개인, 환경, 행동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결과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론에서는 개념간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환경에서 개인, 행동으로 향하는 일 방향만을 설정하여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성과는 기대를 변화시킨다. 즉 음주행동을 예로 들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음주행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기대했던 대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했다면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 즉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더욱 공고해진다. 만약 행동 후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기분이 더욱 나빠지는 등 반대되는 경험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 기대가 수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결과가 기대를 변화시키는 부분은 제외하고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서 행동으로 향하는 방향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환경과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행동은 여러 환경적 영향 가운데 어느 것에 작용하고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환경적 영향은 어떤 행동유형이 발달되고 활성화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변창진과 김경린, 2002). 환경적인 요소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 왔다. 음주행위의 경우 부모나 친구,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이재경과 정슬기, 2010). 그렇다면 행동에서 환경으로의 방향성이란 환경은 적절한 행위에 의해 활성화가 되어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행동이 발생해야 그것과 관련된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율(2009)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수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듯이 환경은 행동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서 환경으로의 방향성은 이미 전제가 된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서 음주행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Bandura (1977)는 모든 연구에서 상호적 영향의 패러다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개인, 행동으로 가는 일 방향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효능감,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요인, 주변 친구나 부모의 영향,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음주행

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학습이론이 유용할 수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은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에 인지적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행동주의를 더욱 확장시킨 이론으로 음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 인지적 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Bandura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지만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그 외 다른 내적 사건들에 의해 중재되어 최종적으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본다(김윤정, 2011).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실제로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음주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박수현, 2008).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를 뜻하며 가족, 친구, 동료,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김율, 2009). 또한 이론에서는 상황이라는 개념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상태를 뜻하며(김율, 2009), 스트레스 상황과 같이 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음주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근처에서 술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술의 가격이 저렴하여 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음주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음주행위가 조절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관찰학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관찰학습이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배우는 것을 뜻한다. 관찰학습은 자신이 직접 경험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하고 모델링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김윤정, 2011). Bandura (1977)는 관찰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의과정, 파지과정, 운동재생과정, 동기화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주의과정(attention process)이란 여러 대상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관찰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파지과정(retention process)은 관찰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 운동재생과정(motor reproduction process)은 파지과정에서 기억으로 저장해 둔 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기화과정(motivational process)이란 개인은 모든 행동을 관찰학습하지는 않는데 여러 행동 중 어떠한 것에 집중하여 관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기화과정에서는 강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강화는 관찰학습을 동기화시킨다. 강화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올림픽에서의 메달이나 시험에서의 학점과 같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강화인 외적 강화, 성취감과 같은 내적강화, 타인이 처벌이나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함에 따른 대리 강화, 자기 스스로 보상이나 처벌을 제공하는 자기 강화가 있다(김윤정, 2011).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개인의 환경과 관찰학습이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환경적 요소와 행위 사이를 매개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 요인은 학습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으며 행위를 조절할 수 있다(조희, 1999). Bandura (1977)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인지 요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음주행위에서는 거절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음주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이유리와 권정혜, 1997).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자기 통제감을 통하여 음주 상황에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김순오, 2005), 음주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음주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원치 않은 음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음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음주행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환경과 행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음주행위와 관련하여 음주결과기대란 음주행위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정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되어 기억되면 이는 다음번 유사한 상황에서 기대라는 형태로 작용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술을 마셨을 때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반복하여 경험하였다면 다음 번 우울한 상황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기분을 고양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음주행위기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기대 또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인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인간의 행위는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함께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회학습이론은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기틀(Research framework)

본 연구는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가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매개변수를 거쳐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 개인이란 인지적 요소를 뜻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경에서 개인, 행동으로 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순오, 2005; 이재경과 정슬기, 2010). 그 이유는 본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음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론의 내용 중 행동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인지적 요인에서 음주행위로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음주행위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이다. Bandura (1977)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환경적 자극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각 개인의 인지적 요소들은 행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인지적 요인은 행위 직전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행동이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지만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중재되어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본다(김윤정, 2011). 따라서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환경적 요인에서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여 행위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하나의 방향으로만 향하도록 연구의 기틀을 설정한 것은 Bandura (1977)는 상호작용이 아닌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 연구는 음주 '행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학습이론 중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방향성을 근거로 연구의 기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의 4개의 외생변수와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의 3개의 매개변수의 관계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고찰 내용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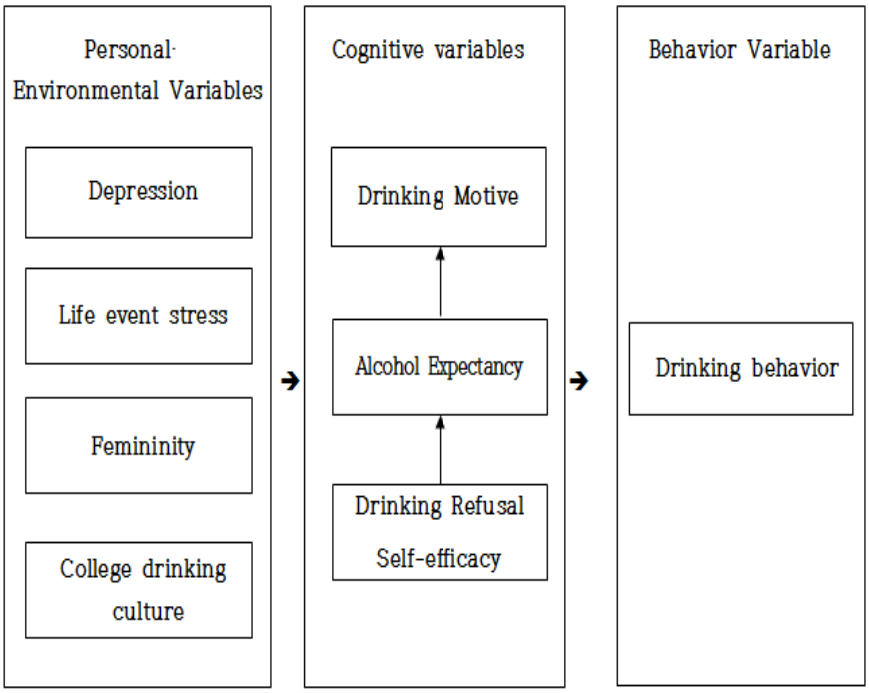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3. 가설적 모형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와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경로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내생변수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음주행위를 포함하고 측정변수는 총 6개이다. 외생변수는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를 포함하고 측정변수는 총 4개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간의 관계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모형의 선행변수로 우울을 포함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우울이 음주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정주리 등, 2015)와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조희, 1999) 그리고 우울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김순오, 2005)에 근거하였다. 또한 우울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정슬기, 2007; 하주영, 2010)에 근거하여 우울에서 매개변수인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결과변수인 음주행위로의 직·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둘째, 가설모형의 선행변수로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스트레스는 음주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연구(박경민과 이민규, 2005), 스트레스와 음주결과 기대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정림, 김형태, 김선영, 윤미은과 천성수, 2015)를 참고하여 경

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의숙, 2002; 남진열, 2008)에 근거하여 생활사건 스트레스에서 음주행위로의 직·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셋째, 가설모형의 선행변수로 여성성을 포함하였다. 여성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김선영과 조혜은, 2015; 최은영과 오현이, 1998)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여성성이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Kulis et al., 2008)와 여성성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rady et al., 2016; Kulis et al., 2008; Williams & Ricciardelli, 2001)에 근거하여 여성성에서 음주행위로 가는 직·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넷째, 가설모형의 선행변수로 대학 음주문화를 포함하였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대학 음주문화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나, 직장 음주문화는 긍정적 음주기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전현진, 2007), 또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하지선, 2009), 음주문화는 음주동기,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김태경과 민혜숙, 2013)를 참고하였다. 사회학습이론과 직장 음주문화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는 문화 안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행위로의 직·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다. 즉 음주동기와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세 가지 매개요인에서 음주행위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여자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연구(강미경과 김인경, 2014)와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명숙, 임미영과 윤영미, 2002),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 강도가 높다는 연구(조희, 1999) 및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다는 선행연구(조희, 1999; Evans & Dunn, 1995)를 근거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서 음주결과기대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고, 음주결과기대와 음주동기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서경현과 조은희, 2011; 정진규 등, 2010)를 바탕으로 음주결과기대에서 음주동기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박혜숙과 김애정, 2008; 윤숙희, 배정이, 이소우, 안경애와 김세은, 2006; Murberg & Bru, 2005)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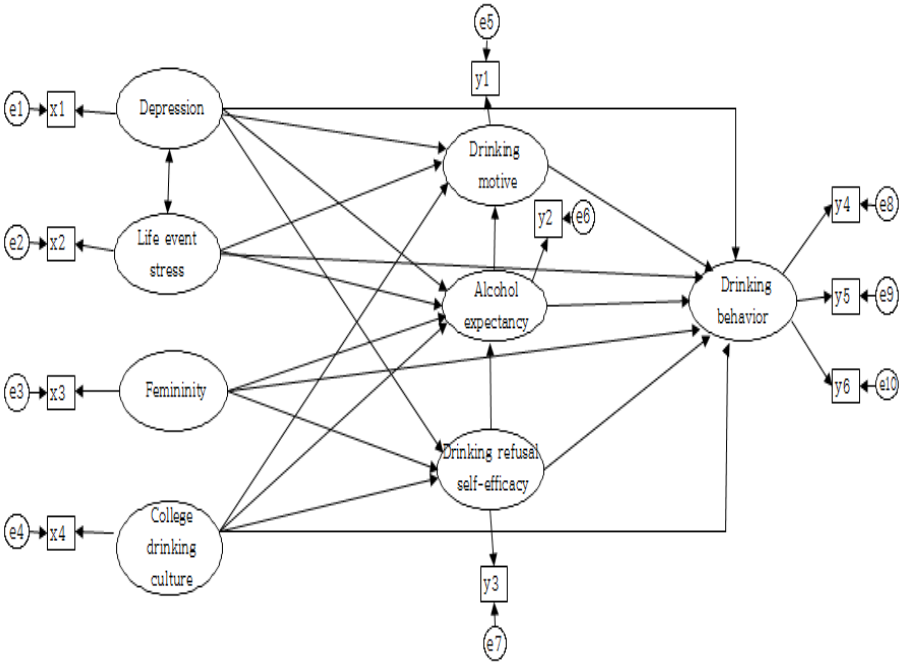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x1: Depression

x2: Life event stress

x3: Femininity

x4: College drinking culture

y1: Drinking motive(coping motive)

y2: Alcohol expectancy(positive)

y3: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y4: Hazardous drinking

y5: Dependent drinking

y6: Harmful drinking

4.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을 내생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음주동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여자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음주결과기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여자대학생의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0.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음주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3.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여자대학생의 음주동기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8. 여자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 여자대학생의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0.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를 파악하고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여자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음주행위를 하는 여자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현재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한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모형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416부를 수집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와 음주총점이 0점인 17부를 제외한 385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현재 음주를 하는 자
-30세 미만의 미혼인 여자대학생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한 자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승인번호 IRB No. E1607/003-001).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을 시작하기 전 첫 화면에 설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였으며 대상자가 스스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다고 클릭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에 동의를 한 경우만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0원 상당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 보관하였다. 설문에 대한 사례품으로 기프티콘을 발송하기 위하여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였으나 발송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 IRB 규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이후 자료는 모두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이다.

4. 연구 도구

1) 음주행위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병욱 등(200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개발한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K)를 이용하였다.

AUDIT-K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3개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을 묻는 1,2,3번 문항은 위험음주, 알코올 의존 증세를 묻는 4,5,6번 문항은 의존 음주,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묻는 7,8,9,10번 문항은 유해음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WHO에서는 8점 이상을 위험한 음주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WHO의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에서 8점 이상을 문제음주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욱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음주에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고려했을 때 12점을 기준으로 문제음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UDIT 총점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의 경로를 확인하였고 각 하부영역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서술적 통계값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수는 0-40점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병욱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4이었다. 또한 음주행위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위험음주는 .74, 의존음주는

.80, 유해음주는 .70으로 나타났다.

2)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신행우(198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언어보고 자료와 Cooper (1994)의 동조동기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음주동기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도구는 음주동기를 고양, 대처, 동조, 사교동기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처동기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처동기란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 음주행위를 하는 내적 부정적 강화동기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1점 '전혀 마시지 않는다'에서 5점 '거의 항상 마신다'로 구분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으면 해당 동기로 술을 마실 확률이 높음을 뜻한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 영역별 Cronbach α는 고양동기 .76, 대처동기 .89, 동조동기 .80, 사교동기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대처동기의 Cronbach α는 .91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하인 값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3) 음주결과기대

음주결과기대는 Alcohol Expectancy Scale(Leigh & Stacy, 1993)을 김석도(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음주결과기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묻는 문항 19개, 부정적 기대를 묻는 문항 15개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묻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을 의미하고,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묻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만을 변수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기대를 묻는 19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으로는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더 개방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과 기분이 사라질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문항은 없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점에서 '매우 그럴 것이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며, 긍정적 결과기대의 점수 범위는 19-95점이다. 김석도(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93, 부정적 기대가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긍정적 음주결과기대의 Cronbach α는 .94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하인 값은 없어 도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4)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Aas 등 (1995)이 개발한 자기효능 척도를 조희(199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데 내가 안 마시는 것은 어렵다', '술을 거절하기 어렵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분포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조희(1999)의 연구

에서 Cronbach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5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2로 .4 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5) 우울

기존의 우울척도들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구가 많아 일반인이 느끼는 우울을 측정하는 것과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총 20문항이며 4번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8번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껴졌다', 12번 '비교적 잘 지냈다', 16번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역문항으로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0점 '극히 드물다'에서 3점 '거의 대부분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 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하인 값은 없었다.

6) 생활사건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Holmes와 Rahe (1967)의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을 기반으로 이평숙(1984)이 제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 후 상황에 대한 생활사건 항목이 있었는데, 이는 여자대학생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스트레스 심각성 정도를 물으며 구체적인 스트레스 생활사건 내용으로는 '중요한 시험', '이성교제의 고민 및 실패', '주거 및 이웃 환경의 큰 변화',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함', '가까운 친구와의 불화' 등으로 총 31개이다. 이 도구는 '전혀 힘들지 않다' 1점부터 '극도로 힘들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 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하인 값은 없어 도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7) 여성성

여성성은 Spence와 Helnreioh (1978)가 개발한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정선영(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 중 여성성 13문항을 이용할 것이다. 원도구는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성은 공격성과 지배성, 여성성은 연약성과 이타성 등의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여성적인

특성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중 여성성 도구만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이다. 도구의 문항은 '나는 감정이 풍부하다', '나는 매사에 수동적이다', '나는 남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나는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문항은 없었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선영(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5 - .7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 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12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29로 .4 이하였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거한 후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8) 대학 음주문화

대학 음주문화는 김재훈(2005)이 구성한 직장 내 음주문화 도구를 대학 상황에 맞게 본 연구자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대학 내 친구 및 선배의 음주와 관련된 문항, 음주 허용과 음주 강요 문항 그리고 음주 문제나 사고에 허용적인 태도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으로는 '학교 친구들끼리 방과 후 술을 자주 마신다', '나의 학교 선배들은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편이다', '학교 친구들끼리 음주 후 실수에 대해 허용적이다' 등이 있다. 이 중 8번 문항인 '우리 학교는 음주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거의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김재훈(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4이었다. 또한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8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28로 .4 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5.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 혹은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 내용과 설문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12개의 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학교 커뮤니티 등에 설문링크로 연결되는 글을 게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Google Forms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재 페이지의 설문 문항에 응답을 완료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를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와 커뮤니티에 게재하였고 각 사이트는 그 학교의 재학생이 로그인을 해야 게시글을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기 전 구글 로그인을 해야 설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중복응답을 방지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이었고 최종 수집된 설문은 총 416부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4부와 음주총점이 0점인 17부를 제외한 385부를 설문에 사용하였다. 설문 마지막 페이지에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품 발송을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을, 도구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4) 구모모형의 검증은 AMOS 23.0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5)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 p값을 이용하였다.
6)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χ^2(Normed χ^2), 적합지수(GFI), 조정부합치(AG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간명부합지수(PGFI), 간명표준부합지수(PNFI), 간명비교적합지수(PCFI)를 이용하였다.
7)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는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1학년이 114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104명(27.0%), 3, 4학년은 각각 85명(22.1%), 82명(21.3%)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1.8세였으며 20세에서 28세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47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약 115명(30%)이었다.

현재 거주상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19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나 하숙을 하는 사람이 87명(22.6%),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56명(14.5%)이었다. 부모를 제외한 가족과 사는 경우가 19명(4.9%), 기타가 4명(1.1%)이었다.

대상자의 용돈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9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가 114명(29.6%), 충분하다가 86명(22.3%), 매우 충분하다가 25명(6.5%), 매우 부족하다가 21명(5.5%) 순이었다.

남자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8명(61.8%), 남자친구가 있는 대상자는 147명(38.2%)이었다.

흡연여부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가 367명(95.3%), 흡연을 한다가 18명(4.7%)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아리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187명(48.6%)이었고 하지 않는 경우가 198명(51.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385)

Variable	Category	n(%) or Mean+SD
Grade	Freshmen	114(29.6)
	Sophomore	104(27.0)
	Junior	85(22.1)
	Senior	82(21.3)
Age(years)		21.8±1.83 Measured range: 20~28
Religion	Christianity	64(16.6)
	Buddhism	22(5.7)
	Catholicism	51(13.2)
	Others	1(0.3)
	None	247(64.2)
Residency	With parents	219(56.9)
	With other family member	19(4.9)
	Self-boarding	87(22.6)
	Dormitory	56(14.5)
	Others	4(1.1)
Allowance	Very low	21(5.5)
	Less than needed	114(29.6)
	As much as needed	139(36.1)
	Enough	86(22.3)
	Very enough	25(6.5)
Boy friend	Yes	147(38.2)
	No	238(61.8)
Smoking	Yes	18(4.7)
	No	367(95.3)
Club activity	Yes	187(48.6)
	No	198(51.4)

2)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음주 점수인 AUDIT 총점은 7점 이하가 154명(40.0%), 8점에서 11점 사이가 89명(23.1%), 12점 이상이 142명(36.9%)을 나타내었다.

음주 횟수는 월 2-4회가 210명(54.5%)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가 98명(25.5%), 주 2-4회가 70명(18.2%), 주 4회 이상이 7명(1.8%) 순이었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은 10잔 이상이 111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7-9잔이 81명(21.0%), 5-6잔이 75명(19.5%), 3-4잔이 67명(17.4%), 1-2잔이 51명(13.3%) 순이었다.

한 번의 자리에서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을 마신 경우는 월 1회가 127명(33.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없음이 92명(23.9%), 월 1회 미만이 94명(24.4%), 주 1회가 56명(14.5%), 거의 매일이 16명(4.2%)을 차지하였다.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대학교 1학년이 251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66명(17.1%), 고등학교 2학년이 29명(7.0%), 고등학교 1학년이 21명(5.5%), 중학교 3학년 이전이 20명(5.2%)이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동기 및 친구가 353명(9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친구가 46명(11.9%), 가족이 23명(6.0%), 동아리 사람이 17명(4.4), 대학 선후배가 13명(3.4%), 혼자가 4명(1.0%)이었다.

Table 2.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85)

Variable	Category	n(%)
AUDIT score	1~7	154(40.0)
	8~11	89(23.1)
	≥12	142(36.9)
Frequency of drinking	Monthly or less	98(25.5)
	2 to 4 times a month	210(54.5)
	2 to 4 times a week	70(18.2)
	More than 4 times a week	7(1.8)
Amount of drinking (glass)	1-2	51(13.3)
	3-4	67(17.4)
	5-6	75(19.5)
	7-9	81(21.0)
	10 or more	111(28.8)
Frequency of heavy drinking	Never	92(23.9)
	Less than monthly	94(24.4)
	Monthly	127(33.0)
	Weekly	56(14.5)
	Daily or almost daily	16(4.2)
Age at first drinking	Before middle school 3rd	20(5.2)
	High school 1st	21(5.5)
	High school 2nd	29(7.0)
	High school 3rd	66(17.1)
	Freshmen in university	251(65.2)
Drinking companion (Multiple responses)	Friends	353(91.7)
	Older and younger alumni	13(3.4)
	Members of a club	17(4.4)
	Boy friend	46(11.9)
	Family	23(6.0)
	Alone	4(1.0)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3과 같다.

외생변수인 우울의 평균 점수는 16.64점이었고,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34.17점이었다. 여성성의 평균 점수는 40.37점을 나타내었고, 대학 음주문화는 23.52점이었다.

내생변수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음주동기가 10.08점, 음주결과기대가 52.86점,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18.91을 나타내었다.

음주행위는 전체 평균 점수가 10.65점이었고, 하위 항목 중 위험음주는 5.82점, 의존음주는 1.74점, 유해음주는 3.10점을 나타내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N=385)

Variables	Mean	SD	Measured range	Skewness	Kurtosis
Depression	16.64	10.39	1~55	.929	.392
Life event stress	34.17	26.55	1~129	1.511	1.934
Femininity	40.37	6.65	13~60	-.493	1.277
College drinking culture	23.52	6.44	10~42	.221	.011
Drinking motive	10.08	4.19	4~20	.251	-.693
Alcohol expectancy	52.86	17.35	0~92	-.737	.409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8.91	5.67	7~30	.087	-.867
Drinking	10.65	7.03	1~36	1.001	.745
Hazardous drinking	5.82	2.68	1~12	-.041	-.894
Dependent drinking	1.74	2.10	0~10	1.505	2.184
Harmful drinking	3.10	3.69	0~15	1.345	1.073

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4).

우울은 생활사건 스트레스(r=.26), 대학 음주문화(r=.11), 음주동기(r=.22), 음주결과기대(r=.10),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15), 의존음주(r=.15), 유해음주(r=.14)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대학 음주문화(r=.17), 음주동기(r=.17), 음주결과기대(r=.16),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11), 의존음주(r=.13)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성성은 대학 음주문화(r=.18), 음주결과기대(r=.31),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16), 의존음주(r=.11), 유해음주(r=.1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동기(r=.23), 음주결과기대(r=.35),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44), 위험음주(r=.30), 의존음주(r=.33), 유해음주(r=.28)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동기는 음주결과기대(r=.31),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12), 위험음주(r=.38), 의존음주(r=.42), 유해음주(r=.3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결과기대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r=-.30), 위험음주(r=.34), 의존음주(r=.32), 유해음주(r=.24)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위험음주(r=-.13), 의존음주(r=-.25), 유해음주(r=-.2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험음주는 의존음주(r=.54), 유해음주(r=.46)와 의존음주는 유해음

주(r=.60)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N=385)

	Depression	Life event stress	Femininity	College drinking culture	Drinking motive	Alcohol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Hazardous drinking	Dependent drinking	Harmful drinking
Depression	1									
Life event stress	.26**	1								
Femininity	.04	.07	1							
College drinking culture	.11*	.17**	.18**	1						
Drinking motive	.22**	.17**	.06	.23**	1					
Alcohol expectancy	.10*	.16**	.31**	.35**	.31**	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5**	-.11*	-.16**	-.44**	-.12**	-.30**	1			
Hazardous drinking	-.01	.08	.08	.30**	.38**	.34**	-.13*	1		
Dependent drinking	.15**	.13**	.11*	.33**	.42**	.32**	-.25**	.54**	1	
Harmful drinking	.14**	.08	.12*	.28**	.32**	.24**	-.25**	.46**	.60**	1

** $p < .01$ * $p < .05$

4.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분석

1) 측정변수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 검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에 절대값 3이상, 첨도에 절대값 7이상인 변수가 없어야 하는데(배병렬, 2009),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왜도와 첨도가 모두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각 변수별로 히스토그램, P-P 도표를 이용하여 정규분포를 확인한 결과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음주행위에서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여자대학생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과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총 10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01-.6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 .7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김계수, 2010)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일부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과 붓스트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간명적합지수로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CFI(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가 200이 넘었기 때문에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표준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확인 결과, χ^2/df =2.585, GFI =.972, AGFI =.929, RMSEA =.063, NFI =.804, CFI =.858, PGFI =.389, PNFI =.393, PCFI =.419으로 나타났다. 7개의 적합지수는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2개의 적합지수 값은 근소하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두 .8 이상으로 이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 해당하여 모형이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Model Fit of the Hypothetical Model

Model	χ^2/df	GFI	AGFI	RMSEA	NFI	CFI	PGFI	PNFI	PCFI
Reference	<3	≥.9	≥.9	≤.08	≥.9	≥.9	≤.5	≤.5	≤.5
Hypothetical	2.585	.972	.929	.063	.804	.858	.389	.393	.419

3) 가설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분석 결과 총 20개의 경로 중에서 7개를 제외한 13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내생변수 중 음주동기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우울(t=3.15), 대학 음주문화(t=2.81), 음주결과기대(t=5.09)에서 음주동기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내생변수 중 음주결과기대를 살펴보면, 생활사건 스트레스(t=1.91), 여성성(t=5.96), 대학 음주문화(t=4.59),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t=-3.41)에서 음주결과기대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내생변수 중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여성성(t=-2.13), 대학 음주문화(t=-9.17)에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내생변수 중 음주행위로 가는 변수는 대학 음주문화(t=3.81), 음주동기(t=7.79), 음주결과기대(t=3.95)에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6.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C.R.	SMC
Drinking motive	Depression	.15	3.15**	15.3
	Life event stress	.08	1.74	
	College drinking culture	.14	2.81**	
	Alcohol expectancy	.25	5.09**	
Alcohol expectancy	Depression	.04	0.83	22.0
	Life event stress	.09	1.91*	
	Femininity	.28	5.96**	
	College drinking culture	.24	4.59**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7	-3.4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epression	-.09	-1.91	20.3
	Femininity	-.10	-2.13*	
	College drinking culture	-.43	-9.17**	
Drinking behavior	Depression	-.05	-1.05	41.5
	Life event stress	-.00	-0.09	
	Femininity	-.02	-.36	
	College drinking culture	.22	3.81**	
	Drinking motive	.42	7.79**	
	Alcohol expectancy	.22	3.9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5	-.88	

** $p<0.01$ * $p<0.05$ C.R =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4) 구조모형의 효과분석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음주동기에 대하여 우울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유의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다. 대학 음주문화는 직접, 간접,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음주결과기대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음주결과기대에 대하여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여성성과 대학 음주문화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우울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에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우울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행위에 대하여 대학 음주문화와 음주결과기대에서 유의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음주동기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은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rinking motive	Depression	.15**	.01	.17**
	Life event stress	.08	.02*	.11*
	College drinking culture	.14*	.08**	.22**
	Alcohol expectancy	.25**	-	.25**
Alcohol expectancy	Depression	.04	.02	.05
	Life event stress	.09*	-	.09*
	Femininity	.28**	.02*	.29**
	College drinking culture	.24**	.07**	.3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7**	-	-.17**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epression	-.09	-	-.09
	Femininity	-.10*	-	-.10*
	College drinking culture	-.43**	-	-.43**
Drinking behavior	Depression	-.05	.10**	.04
	Life event stress	-.00	.07**	.06
	Femininity	-.02	.10**	.08
	College drinking culture	.22**	.18**	.40**
	Drinking motive	.42**	-	.42**
	Alcohol expectancy	.22**	.11**	.33**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5	-.06**	-.10

** $p<0.01$ * $p<0.05$

5.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총 20개의 연구가설 중 13개는 지지되었고, 7개는 기각되었다. 각 가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주동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15, *p*=.008)와 총효과(β=.17,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2.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8, *p*=.06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02, *p*=.045)와 총효과(β=.11, *p*=.04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3.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14, *p*=.013), 간접효과(β=.08, *p*=.002), 총효과(β=.22, *p*=.00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4. 여자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25,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2) 음주결과기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4, *p*=.356), 간접효과(β=.02, *p*=.069), 총효과(β=.05, *p*=.25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6.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09, *p*=.04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7.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28, *p*=.002), 간접효과(β=.02, *p*=.014), 총효과(β=.29, *p*=.00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8.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24, *p*=.003), 간접효과(β=.07, *p*=.002), 총효과(β=.31, *p*=.00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9. 여자대학생의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17,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3)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0.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09, *p*=.1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11.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10, *p*=.02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12.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43, *p*=.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4) 음주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3. 여자대학생의 우울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5, *p*=.326)와 총효과(β=.04, *p*=.588)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10,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14.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0, *p*=.999)와 총효과(β=.06, *p*=.242)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07, *p*=.00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15.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2, *p*=.693)와 총효과(β=.08, *p*=.083)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10, *p*=.00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16. 여자대학생의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22, p=.001), 간접효과(β=.18, p=.003), 총효과(β=.40,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17. 여자대학생의 음주동기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β=.42,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18. 여자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22, p=.002), 간접효과(β=.11, p=.002), 총효과(β=.33, p=.00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19. 여자대학생의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β=-.05, p=.424)와 총효과(β=-.10, p=.098)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0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20.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우울과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어(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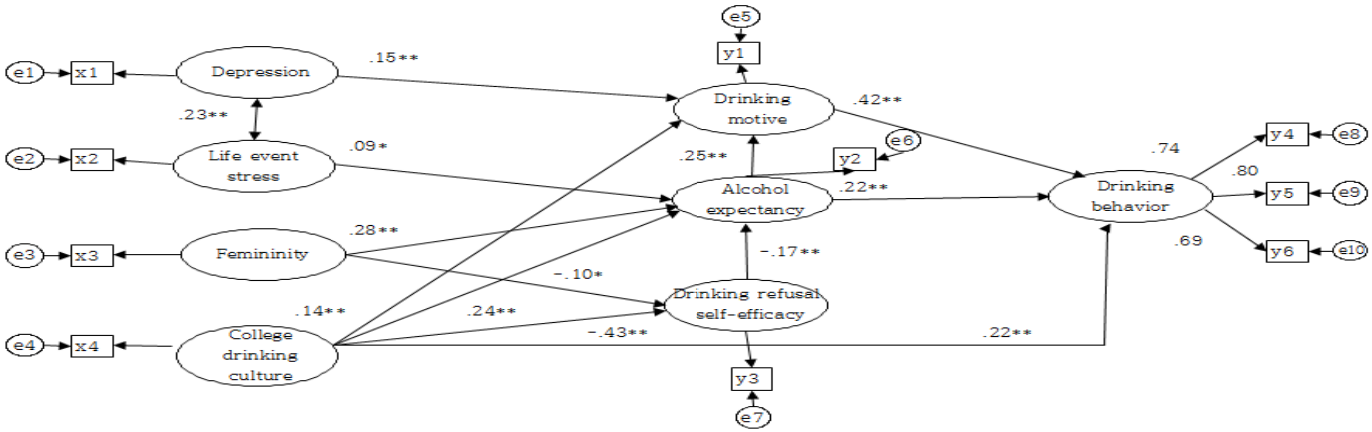

Figure 3. Final Model of This Study

x1: Depression

x2: Life event stress

x3: Femininity

x4: College drinking culture

y1: Drinking motive(coping motive)

y2: Alcohol expectancy(positive)

y3: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y4: Hazardous drinking

y5: Dependent drinking

y6: Harmful drinking

VI. 논의

1.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적합성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적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0개의 경로 중 13개의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9개의 지수 모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었다.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은 대학 음주문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41.5%이었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대학 음주문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대학 음주문화, 음주결과기대, 여성성,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음주동기, 대학 음주문화, 음주결과기대 순이었다.

지금까지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음주행위를 설명한 연구는 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수의 단편적인 영향요인만을 보거나, 구조모형을 이용하더라도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음주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1.5%였는데,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인지적 변수와 문헌고찰을 통한 사회심리적 변수를 주로 다루었지만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여자대학생이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해결을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음주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행위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일 수 있고 혹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음주의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의 경우 간호중재를 통하여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설명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여자대학생과의 직접 면담 방법을 이용하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여자대학생의 음주 관련 특성

여자대학생의 음주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음주점수인 AUDIT 점수 평균이 10.65점으로 WHO에서 제시하는 위험음주 수준인 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대학생의 13.6점(정진규 등, 201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직장여성 6.5점(하지선, 2009)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여성 음주자 중 대학생들의 음주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되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유롭게 음주를 접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음주가 보편화된 점, 대학사회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음주 횟수는 월 2-4회가 54.5%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의 여자대학생이 1-2주에 한번 음주자리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대학생도 월 2-4회가 40.4%가 가장 많은 비율(송지영, 2008)을 차지한 것을 보았을 때, 여자대학생이 갖는 음주 기회가 남자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은 월 2-4회의 음주 횟수가 36%를 나타냈으며, 과반수 이상인 57.5%가 월 1회 미만의 음주횟수를 보여(도은영 등, 2009), 직장 여성에 비해 여자대학생의 음주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횟수가 남자대학생과 비슷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음주가 남성들의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의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술자리를 갖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남성들처럼 평범한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은 10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자대학생이 한 번에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51.6%(송지영, 2008)인 것과 비교하여 적은 수치이기는 하나, 직장인과 비교하였을 때 직장여성의 경우 한 번에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6.5%, 직장남성의 경우 21.6%(권구영, 2005)로 여자대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자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자대학생의 1/4 이상이 가볍게 음주를 하기보다는 취할 정도로 폭음을 한다는 의미로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여자대학생뿐만 아니라 남자대학생도 주의해야 할 음주습관으로 이는 음주 후 여러 가지 신체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술자리는 당연히 취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음주습관과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자대학생이 음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전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4.8%이었다. 도은영 등(2009)의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첫 음주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 이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3%임을 보았을 때 첫 음주시작 시점이 중고등학생 시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 시기부터 음주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대학 동기나 친구가 가장 많은 91.7%를 차지했고, 남자친구와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도 11.9%를 차지하였다. 이성과 술을 마시는 경우 계획하지 않은 성행위,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원치 않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포함한 음주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자대학생의 음주 관련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AUDIT 음주점수를 기준으로 12점 이상을 문제음주군, 12점 미만을 적정음주군으로 나누어서 특성을 살펴보았다. WHO의 기준을 바탕으로 8

점을 기준으로 문제음주자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병욱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음주에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12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두 그룹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년, 흡연 여부, 동아리 활동 여부, 음주 횟수, 음주량, 한 번에 과음을 한 횟수였다. 문제음주군에서 적정음주군에 비해 1, 2학년의 비율이 높고, 3,4 학년의 비율이 낮아 신입생을 포함한 저학년 여자대학생이 문제음주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입생 시절부터 절주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음주군에서는 흡연을 하는 사람이 유의하게 많아 문제음주군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하며, 문제음주군의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음주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음주행위가 교내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아리와 같은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적정음주군과 문제음주군에서 측정변수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우울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를 하는 그룹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여성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음주군의 대학 음주문화가 음주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문제음주군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반면 문제음주군에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더 낮았다.

3.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고찰

음주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젊은 층에서 가벼운 술자리는 하나의 놀이문화이기도 하다. 또한 적당량의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도가 낮아져(Thun et al., 1997),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음주행위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음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음주 때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은 다소곳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편파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여자대학생도 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술자리를 즐기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음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행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하되 적정선을 넘은 과도한 음주의 예방은 필요하다는 건강관리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음주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에 두고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 스트레스, 여성성이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으며 매개변수를 통하여 음주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단순히 우울이나 스트레

스만을 중재하는 것보다 복잡한 음주행위 경로를 이해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중심으로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직·간접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우울에서 음주동기를 거쳐 음주행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은 여자대학생은 음주를 통하여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이러한 동기는 음주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이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주리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 우울은 평균 16.72점으로 이는 직장 여성 20.34점(김옥수와 김계하, 2001), 남자대학생의 19.04점(김계하와 김옥수, 2000)보다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16점 이상을 받은 대상자는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Radloff, 1977), 여자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꽤 높음을 알 수 있고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여자대학생일수록 술을 통하여 이러한 기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음주동기가 높아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미경과 김인경(2014)은 음주동기가 음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대처동기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음주동기가 음주행위에의 마지막 공통된 통로(Cox & Klinger, 1988)라는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음주동기 중 부정적 기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동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변수 중 음주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대처동기로 음주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김용석, 2000)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정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우울이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자대학생은 우울하다고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을 느꼈을 때 음주를 통하여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기가 있어야 음주행위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우울 수준은 물론이고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음주를 하는지 사정할 필요가 있다. 우울 수준이 높아도 평소에 기분이 좋아서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울이 음주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단순하게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처동기라는 음주동기를 통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중재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경로는 여성성에서 음주결과기대를 거쳐 음주행위로 이르는 경로이다.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이 높은 경우 음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음주행위를 하게 된다. 음주결과기대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으로 설명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음주결과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대학생은 음주절제력이 떨어지고 술에 취하는 빈도가 높으며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신행우(200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여자대학생의 여성성 점수는 43.75점으로 주부가 대다수를 이룬 일반 여성의 여성성 점수 44.1점(정선영, 2003)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여성성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여자대학생들은 과거와 비슷한 정도로 여성성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Brady 등 (2016)은 여성성 성역할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때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음주행위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성의 특성이 높은 여성이 여성다워야 한다는 굴레로 인하여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음주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경로는 알코올 중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김성재(2006)는 초기 음주경험에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되며, 긍정적 기대란 음주를 통하여 평소에 안 해보던 행동을 할 수 있는 재미와 자신을 규제해온 규범을 일탈할 자신감이라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그러한 욕구가 결핍될 때마다 음주를 찾게 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음주경험은 그동안 억압되어온 것이 해방되는 것을 강하게 학습시키면서 지켜왔던 규범을 어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내용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여성이 지켜왔던 규범이란 여성성, 여성다움으로 볼 수 있고 억압되어온 것이 해방된다는 것은 여성성과의 반대개념, 즉 남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음주가 일시적으로 남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 Anderson, Stevens과 Pfost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우위를 측정할 수 없는 개념으로 여성성, 남성성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행위와 성역할 정체감을 다룬 연구에서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만을 강조하지 않으며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가진 양성성이 양호한 건강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박영숙과 박은옥, 1999).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공감적, 이타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존적, 수동적이라는 특성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음주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성 측정도구를 문항별로 분석해본 결과, 음주결과기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문항은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였고, 그 뒤를 이어 '나는 감정이 풍부하다', '나는 동조적이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성성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나는 매사에 수동적이다', '나는 남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동조적이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여자대학생 중 감정적이고 동조적인 성격을 지닌 대상자가 사회적 수용, 재미, 긴장 완화 등의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성 중에서 수동적이고 동조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음주 상황에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이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선배로부터 음주압력이 있을 시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신행우(2004)의 의견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절주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성 특성 중 어떠한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여자대학생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과도한 음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은 남성적인 성향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과거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여자대학생 음주행위 중재에 여성성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번째 경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에서 음주결과기대를 거쳐 음주행위에 이르는 경로이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생겨 음주행위로 이어진다. 이는 스트레스와 음주결과기대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

구 결과(이정림 등, 2015)와 비슷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수록 음주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나 사회학습이론이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서도 설명력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가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음주결과기대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서만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 혹은 주변인의 영향으로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행위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부모님, 가까운 선배, 친구, 대중매체 등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경우 음주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장래의 진로설정 문제의 고민', '중요한 시험', '중요한 시험의 실패', '이성교제의 고민 및 실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선 여자대학생이 음주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사정하여 이를 올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상, 운동, 상담 등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개발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며 과도한 음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잘못된 방식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과도하게 클 경우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수정 가능한 음주결과기대(박경과 최순희, 2015)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대학 음주문화와 관련된 경로이다. 대학 음주문화는 가설적 모형의 모든 인지적 매개요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직접적

으로 음주에 영향을 준 유일한 외생변수였다. 그만큼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학 음주문화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자대학생에 특이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동기를 거쳐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 내에서 음주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음주동기가 높고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음주행위가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인 음주문화가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대학 음주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직장 내 음주문화과 음주행위에 있어 음주동기가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김대수와 이재훈(201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음주동기는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인 대학 음주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내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음주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요에 의한 음주와 과도한 음주에 허용적인 교내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여전히 강요에 음주가 많으며 특히 음주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신입생 시절에 이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즉,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의 강요, 학과나 동아리 등의 친목도모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광환, 김용하, 노상균과 김지희, 2011;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와 박종순, 2001).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하여(박용주, 1999) 문제음주를 하고 있어도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의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율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음주에 허용적인 음주문화가 바

뀌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대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주축이 되어 절주 프로그램 진행, 교육,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절주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주량을 인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가 임신 및 태아, 생식기 건강, 유방암 등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야 하며 원치 않는 음주는 주체성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 강요가 없으며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는 음주문화 확립을 위하여 대학교 입학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 보호 교육과 같이 문제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일부 대학교에서는 술 없는 대학 축제 만들기, 음주 없는 신입생 환영회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건전한 게임, 레크레이션 등 음주를 대신할 놀이문화의 정착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대학생 스스로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여자대학생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음주 문화가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음주 분위기를 지양하고 다른 사람의 음주 수준에 대하여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학 음주문화와 관련된 또 다른 경로로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대학교 내에서 음주에 허용적일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고 음주 행위가 잘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인식을 형성하는 것에 사회적 경험의 학습이 전제된다

는 사회학습이론(권구영, 2005)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음주에 대한 기대는 모델링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데(변창진과 김경린, 2002) 친구와 선배들의 음주행위를 모델링하여 음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한 태도가 사회의 기대에 맞게 학습된다고 하였는데(권지현, 1996), 이는 대학 음주문화가 음주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 사회문화 내에는 정상으로 간주되거나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 양식이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특정 규범에 따르도록 요구받는다(하지선, 2009). 이에 대학교 내에서 음주에 허용적이라면 이를 옳은 것으로 여기고 음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대학 음주문화는 외생변수 중 유일하게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대학 내에서 음주에 허용적일 경우 인지적 매개요인을 거치지 않고도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문화가 허용적일수록 음주빈도가 잦아진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며(보건복지부, 2006), 음주행위에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행동이 개인적, 심리학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행위를 이해하는데 더 큰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적절한 음주에 대한 중재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의 절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여자대학생의 과도한 음주행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을 논의하려고 한다. 사회학습이론과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본 연구에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수영(2006)의 결과와 상반되었고, 자기효능감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재경과 정슬기(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인들 사이에서 음주행위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도 작용하였다(임성범, 2005). 또한 김민경(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금주효능감을 꼽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숙고해보면,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문제음주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일반 여자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자대학생의 평균 음주 점수는 10.65점이었고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36점이었으며 낮은 점수에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여자대학생 중 음주 점수가 낮은 대상자는 음주행위를 자주 하거나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를 거절해야 할 상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행위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적정수준의 음주를 유지하는 여자대학생은 자신이 사교나 친목을 위해서 음주하는 것을 문제 행동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요약하면, 심각한 문제음주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행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만이 아닌 일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음주를 거절해야 할 만큼 많이 마시지 않거나 거절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추후 음주 점수가 높은 문제음주자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학습이론이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는데 일부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수를 확인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여자대학생 음주행위에의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증가하는 여자대학생의 음주실태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여자대학생의 음주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서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여성성에서 음주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스트레스에서 음주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대학 음주문화에서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을 밝혀냈는데 추후 이를 참고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자대학생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여자대학생 대상의 중재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절주프로그램은 대학 음주문화와 같이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우울이나 여성성과 같이 각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재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에 적합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변수와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변수를 사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많은 유의한 경로를 도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도 높았지만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이에 여자대학생과의 질적 인터뷰를 통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내생변수 중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음주행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여성 음주의 증가와 함께 여자대학생 또한 높은 음주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자대학생은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환경에 놓여있어 잘못된 음주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음주는 친목도모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알려진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음주행위를 예측하는 외생변수는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 대학 음주문화였고, 내생변수는 음주동기,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 음주행위였다. 가설적 구조모형은 총 8개의 변수와 10개의 측정변수로 이루어졌다.

가설적 모형의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총 9개의 적합지수 중 7개의 지수에서 부합도가 권장지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지수도 수용 가능한 범위를 보였다. 또한 총 20개의 경로 중 13개의 경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내생변수는 총

4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대학 음주문화는 음주행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내생변수 중 음주동기와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생변수인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여성성은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여자대학생의 우울, 스트레스, 여성성은 직접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음주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절주 프로그램은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인지적 요인을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져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의 여성성 성향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음주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수정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 음주문화도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교 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음주를 강요하지 않는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음주특성을 고려한 절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여자대학생에게 적합한 절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음주행위에 대한 남자대학생과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교 내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홍보와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강미경, 김인경 (2014).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 행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8), 5053-5061.

고영태 (1995). 여대생의 음주실태와 음주에 대한 의식구조. *덕성여대논문집, 24*, 327-338.

곽정옥, 김영복 (1997). 일부 여자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259-269.

구미옥 (1994).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 자기조절, 상황적 장애, 자기간호 행위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4*(4), 635-65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 *2014 국민건강통계*. Retrieved September 9, 2016,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 *2015 국민건강통계 I*. Retrieved September 2, 2016,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김계하 (2001). *미혼여성의 음주양상과 흡연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하, 김옥수 (2000). 남녀 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2*(1), 43-53.

김광환, 김용하, 노상균, 김지희 (2011). 일개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일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1), 4932-4939.

김대수, 이재훈 (2014). 지각된 직장 내 음주규범과 음주행위 간의 관계: 음주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29*(5), 1-27.

김명숙, 김명희 (2009). 일 지역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50-60.

김민경 (2012).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심각도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옥, 전영자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39-558.

김석도 (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기대이론과 기대가치이론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주 (1993).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소고: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11*(2), 1-14.

김선영, 조혜은 (201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만족도와 자기효능감. *한국치위생학회지, 15*(5), 933-939.

김성재 (2006). 알코올중독여성의 음주경험: 여성주의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5*(4), 362-374.

김순오 (2005). *성인 남성의 음주행위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옥수, 김계하 (2001).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363-372.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음주문제간의 관계: 경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김용석, 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요인. *사회복지학회지, 44*, 91-116.

김윤배 (2007).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이 음주행동에 미치*

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서울

김율 (2009).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초등학생의 레저시간 운동량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의숙 (2002).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행동 및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서울

김정애 (2014).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 분석.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1), 58-70.

김재훈 (2005). *직장인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경, 민혜숙 (2013). 만성 간 질환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3), 261-273.

김혜원 (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구영 (2004).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간의 관계에서 음주 및 음주하위문화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구영 (2005).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무직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5), 93-118.

권지현 (1996).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약물사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진열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특성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특성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교정복지연구, 12,* 27-47.

도은영, 김연화, 김정화 (2009). 여대생, 여성 직장인 및 주부의 문제음주와 음주기대 비교.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1), 93-106.

류현숙, 백민자 (2012).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3), 307-315.

문경숙 (200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신체증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인수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 최순희 (2015).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이 음주 여대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및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364-373.

박경민 (2005). *음주행동과 음주동기, 음주 욕구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의 탐색: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알코올 결과기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0*(3), 277-293.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38*(6), 779-788.

박수현 (2008).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 박은옥 (1999).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건강행위. *여성건강간호학호, 5*(3), 362-378.

박영숙, 표미자, 김정선 (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의학저널, 18*(4), 399-409.

박용주 (1999).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3-8.

박종순 (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26*(4), 393-413.

박혜숙, 김애정 (2008). 여대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양생 간의 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1*(2), 149-159.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백복녀 (2003). *대학생 우울정도에 따른 식행동 및 식품섭취 빈도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수진 (2015). *인간관계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 실태 및 문제음주*.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창진, 김경린 (2002). *사회적 학습이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보건복지부 (2006). *사업장 근로자의 절주능력 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과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 *보도자료(6월 11일)*. Retrieved September 2, 2016,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41355&SEARCHKEY=TITLE&SEARCHVALUE=음주

보건복지부 (2010). *보도자료(8월 4일)*. Retrieved September 2, 2016,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39191&SEARCHKEY=TITLE&SEARCHVALUE=음주

서울 통계 (2014). *고위험 음주율*. Retrieved September 2, 2016, from http://stat.seoul.go.kr/jsp3/index.jsp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61-78.

서경현, 조은희 (2011). 감각추구 성향 및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 동기 및 문제음주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1-14.

손애리 (2014). 여대생의 음주와 성역할고정관념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학회지, 15*(2), 103-110.

송남옥 (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 수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영 (2008). *대학생들의 음주관련 인식, 음주실태 및 건강관리습관과의 관련성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원우, 유채영 (2007). 음주동기 유형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64-387.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1), 93-109.

신행우 (2004). 여자 대학생의 여성성 과잉과 음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693-711.

양승희 (2006). 일지역 여성의 음주인식, 음주행태,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7*(2), 23-45.

양승희, 윤지원 (2015). 여대생의 음주문제와 정신건강. *스트레스연구, 23*(3), 137-145.

양승희, 한금선 (2003). 여대생의 음주형태, 음주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7), 1057-1064.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유경희 (1998). *가족력, 대처 방식, 음주 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계숙, 신동우 (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윤숙희, 배정이, 이소우, 안경애, 김세은 (2006).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연 행태. *보건과 사회과학, 19,* 31-50.

윤혜미 (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과학연구논총, 3,* 1-15.

이경숙, 고진강, 김주현, 손행미, 송미령, 유수정, 조경숙 (2013). 전국 여대생의 우울 영향 요인.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12-121.

이경희 (2004). *여대생의 음주량과 음주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형, 이영자 (2000). 직장인 문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정신간호학회지, 9*(2), 180-194.

이병욱, 이충헌, 이필구, 최문종, 남궁기 (2000). 한국어판 알코올 사

용 장애 진단검사(AUDIT-K: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지, 4*(2), 83-92.

이수영 (2006). *직장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복, 박준규 (2015).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을 매개로. *인지행동치료, 15*(2), 359-376.

이유리, 권정혜 (1997). 비행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관한 일연구-사회 학습 이론 모형과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1), 717-730.

이은숙, 봉은주 (2014).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새앆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회연구지, 20*(2), 121-128

이원재 (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제10집, 79-95.

이재경, 정슬기 (201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음주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24-153.

이정림, 김형태, 김선영, 윤미은, 천성수 (2015).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6*(1), 83-92.

이제현 (2013). *광주지역 일부 식품영양학 및 간호학 전공 여대생들의 음주문화 실태조사.* 전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 (2011). *대학생과 성인의 음주행태 비교연구.* 고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평숙 (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

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4*(4), 869-886.

임성범 (2005). *알코올중독 환자의 재발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승옥 (2006). 여대생의 음주문제 예방전략.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2006*(1), 89-105.

장인경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음주효과기대와 음주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현진 (2007). *직장 내 음주환경이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연, 김홍석, 이정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별에 따른 방어유형. *청소년학연구, 19*(5), 21-46.

정다희 (2005). *청소년 음주동기와 음주행동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영 (2003). *여성알코올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슬기 (2006). 청소년 음주: 술에 대한 관대함이 청소년 음주 부추긴다. *건강생활, 2006,* 9-11.

정슬기 (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76-198.

정원식 (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정선영 (2003). *여성알코올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리, 김은영, 이유정, 최승애, 김정기 (2015). 대학생들의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 우울,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2), 293-308.

정진규, 김종성, 김종임, 김경희 (2010). 대학생의 음주 정도에 따른 음주 동기와 음주 결과 기대. *가정의학회지, 31*(5), 377-383.

조성기 (2001).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희 (1999).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2002).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의 성별 비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1), 77-88.

최미이 (2000). *직장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2001). 대학사회의 절주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1), 67-113.

최성희 (2001). *기혼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영, 오현이 (1998).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81-193.

하주영 (2010). 대학생의 음주문제,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성인간호학회지, 22*(2), 182-189.

하지선 (2009). *여성직장인의 음주행동 영향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문제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Aas, H., Klepp, K. I., Laberg, J. c., & Aaro, L. E.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y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1,* 293-299.

Ames, G. M. & Grube, J. W. (1999). Alcohol availability and workplace drinking: Mixed method analys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3), 383-393.

Anderson, M. R., Stevens, M. J., & Pfost, K. S. (2001). Sex-role strain in alcoholic women. *Substance use & misuse, 36,* 653-662.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Prentice Hall.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Brady, J., Iwamoto, D. K., Grivel, M., Kaya, A., & Clinton, L.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salient role of feminine norms on substance use among women. *Addictive behaviors, 62*(2016), 83-90.

Brady, K. T. & Randall,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subst ance use disord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2*(2), 241-252.

Brown, S. A., Goldman, M. S., & Christiansen, B. A. (1985). Do alcohol expectancies mediate drinking patterns of adults? *Journal of consult clinic psychology, 53*, 512-519.

Conger. J. (1956). Alcoholism: theory, problem and challenge. II.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 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2), 296-305.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elescen 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Cooper, M. K., Russell, M. & Frone, M. R. (1990). Work stress a nd alcohol effect: A test of stress-induced drinking. *Jou 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0-276.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 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2), 123-132.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 e. *Journal of Psychology, 97*(2), 168-180.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ement: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 le.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6,* 186-193.

Efthim, P. W., Kenny, M. E., & Mahalik, J. E. (2001). Gender rol e stress in relation to shame, guilt, and externalization. *J 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30-438.

Hasking, P. A., & Oei, T. P. S. (2002). The differential role of al 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copi ng resource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in commu nity and chlinical sampl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 ry, 10*, 465-494.

Heather, A. M., & Sherry, H. S. (2001). The context-specific posi tive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of university women. *Addictive Behaviors, 26*(1), 31-49.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 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 213-218.

Holmila, M., & K. Raitasalo (2005).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 g: Why do they still exist?". *The study of addiction to a lcohol and other drug, 100,* 1763-1769.

Iwamoto, D. K., Grivel, M., Cheng, A., Clinton, L., & Kaya, A. (2 016). Asian American women and alcohol-related problem s: The role of multidimensional feminine norm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8*(2), 360-368.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 ex rol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 logy, 45,* 1101-1115.

Kaya, A., Iwamoto, D. K., Grivel, M., Clinton, L., & Brady, J. (20 16). The role of feminine and masculine norms in college

women's alcohol us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7*(2), 206-214.

Kulis, S., Marsiglia, F. F., Lingard, E. C, Nieri, T., & Nagoshi, J. (2008). Gender identity and substance use among studen ts in two high school in Monterrey, Mexico.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5*(2008), 258-268.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 g.* NY: Springer.

Leigh, B. C., & Stacy, A. W. (1993). Alcohol outcome expectancie s: Scale construction and predictive utility in higher ord er confirmatory models. *Psychological Assessment, 5,* 21 6-229.

Mahalik, J. R., Morray, E. B., Coonerty-Femiano, A., Ludlow, L. H., Slattery, S. M., & Smiler, A. (2005). Development of the confirmity to feminine norms inventory. *Sex roles, 5 2*(7/8), 417-435.

Murberg, T. A. & Bru, E. (2005). The role of coping styles as pr 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 6*(4), 385-393.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Internet]. U SA: 2003 [cited 2015 Dec 26]. Available from:

http://www.niaaa.nih.gov/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Internet]. U

SA: Women and Alcohol: 2015 [cited 2015 Dec 26]. Avai lable from: http://www.niaaa.nih.gov/

Oei, T. P. S., & Burrow, T. (2000). Alcohol expectancy and drink ing refusal self-efficacy: A test of specificity theory. *Ad dictive Behaviors, 25,* 499-507.

Oei, T. P. S. & Morawska, A. (2004). A cognitive model of binge drin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 king refusal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 29,* 159-1 79.

O'hare, T. & Sherrer, M.V. (2008). Co-occurring stress and subst ance abuse in college offenders. *Journal of human behav 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1), 29-44.

Perkins, H. W., & Wechsler, H. (1996). Variation in perceived coll ege drinking norms and its impact on alcohol abuse: A nationwide study. *Journal of drug issues, 26*(4), 961-97 4.

Ptacek, J. T., Smith, R. E. & Dodge, K. L. (1994). Gender differe nces in coping with stress: When stressors and apprais als do not diff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 etin, 20*(4), 421-430.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 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McGraw-Hill: New York, US

Skutle, A. (1999).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xpectanci es, severity of alcohol abus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24*, 87-98.

Spence, J. T., & R. L. Helmreich. (1978). *Masculinity and feminin 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d tecedent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Thun, M. J., Richard Peto, M. D., Lopez, A. D., Monoco, J. H., H enley, S. J., Heath, C. W. Jr, et al. (1997). Alcohol con sumption and mortality among middle-aged and elderl y U.S. adult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7,* 1705-1714.

WHO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Ret rieved September 2, 2016,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67205/1/WHO_M SD_MSB_01.6a.pdf

Wiers, R. W., Hoogeveen, K. J., Sergeant, J. A., & Gunning, W. B. (1997). High and low dose alcohol-related expectanci es and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drinking in ma 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diction, 927,* 871-888.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2001). Sex-role traits and t he comorbidity of symptoms of disordered eating and p roblem drinking. *Eat behavior, 2*(1), 67-77.

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면제 통보서

수신

책임연구자	**이름:** 김효정	**소속:** 간호대학	**직위:** 박사과정
지원기관	해당없음		

과제정보

승인번호	IRB No. E1607/003-001
연구과제명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연구종류	학위 논문 연구, 설문조사
면제일자	2016-07-25
검토의견	본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온라인 설문 연구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의를 면제합니다.(19차 심의 면제)
심의결과	면제승인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면제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016년 07월 25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효정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자대학생의 음주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 약 300~400명이 참여할 것이며, 귀하가 설문조사에 동의를 할 경우 15~2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 문항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는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귀하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작성해주신 설문내용은 코드번호로 처리되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연구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본 연구 참여에의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만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 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품이 제공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효정

◆ 연락처: 010-　　/　E-mail: h3611@snu.ac.kr

본인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함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부록 3. 설문지

<설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고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0점	1점	2점	3점	4점
1.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4회	주 4회 이상
2. 술을 마시는 날은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 한 번의 자리에서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4.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5. 지난 1년 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6. 지난 1년 간 술을 마신 다음 날 일어나기 위해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7. 지난 1년 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8. 지난 1년 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음		지난 1년 간 있었음
10.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음		지난 1년 간 있었음

*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거나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적합한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데 내가 안 마시는 것은 어렵다.					
2.	누가 술을 권할 때 거절할 이유를 댈 수 없다.					
3.	술을 거절하기 어렵다.					
4.	앞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5.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다.					
6.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7	모임에서 술을 안 마시기가 어렵다.					

* 다음은 **대학** 음주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V 표 해주십시오.

항 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끼리 방과 후 술을 자주 마신다					
2.	나의 학교 선배들은 방과 후 술을 자주 마신다					
3.	나의 학교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편이다					
4.	나의 학교 선배들은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편이다					
5.	학교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음주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한다					
6.	학교 친구들끼리 음주 후 실수에 대해 허용적이다					
7.	나의 학교는 선배의 음주 후 실수에 대해 허용적이다					
*8	우리 학교는 음주에 관한 규제가 있다					
9.	술을 못 마시면(안마시면) 대학 생활에 장애가 된다					
10	술을 마시는 것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하다					

* reverse question

* 다음에 제시된 상황들을 떠올려 보고, 지난 3개월 동안 귀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마시지 않는다	거의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거의 항상 마신다
1. 슬플 때(대처)					
2. 스트레스를 받을 때					
3. 화가 났을 때					
4. 기분이 울적할 때					

*다음은 귀하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나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항 목 (술을 마시면 나는..)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1.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될 것이다.						
2.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3 더 개방적이 될 것이다.						
4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5 성욕을 더 느낄 것이다.						
6 더욱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 더 붙임성이 좋아질 것이다.						
8 더 사교적이 될 것이다.						
9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즐길 것이다.						
10 성적으로 더 왕성해질 것이다.						
11 행복해질 것이다.						
12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다.						
13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14 재미있을 것이다.						
15 유쾌한 신체적 효과를 느낄 것이다.						
16 성적인 반응이 더 민감해질 것이다.						
17 성적으로 더 적극성을 띨 것이다.						
18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과 기분이 사라질 것이다.						
19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1주일 동안 귀하의 느낌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1일 이하)	가끔 (1-2 일)	자주 (3-4 일)	대부분 (5-7 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4.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6.	우울했다.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껴졌다.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2	비교적 잘 지냈다.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4.	외로웠다.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				

	았다.				
*16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마음이 슬펐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reverse question

* 각각의 특성이나 행동표현이 귀하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칸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감정이 풍부하다.					
2.	나는 남에게 봉사적이다.					
3.	나는 남을 잘 도와준다.					
4.	나는 남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5.	나는 남을 잘 이해한다.					
6.	나는 양보를 잘 한다.					
7.	나는 매사에 수동적이다.					
8.	나는 위험상황에서 겁을 잘 낸다.					
9.	나는 사회생활보다 결혼(가정)생활을 중요시한다.					
10.	나는 남의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					
11.	나는 동조적이다.					
12.	나는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13.	나는 남의 사랑을 받고 싶다.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열거한 것입니다. 귀하가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V표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여부	스트레스 심각성 정도				
			전혀 힘들지 않다	약간 힘들다	보통이다	매우 힘들다	극도로 힘들다
1	중요한 시험						
2	중요한 시험 실패						
3	이성교제의 시작						
4	이성교제의 고민 및 실패						
5	결혼 전 성관계 또는 혼전임신						
6	주거 및 이웃 환경의 큰 변화						
7	부모의 이혼 및 별거						
8	부모의 재혼						
9	가족의 과음 및 약물사용과 관련된 방탕한 생활						
10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함						
11	실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됨						
12	금전상의 큰 손실을 봄						
13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짐						
14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림						
15	중상 모략을 받음						
16	가까운 친구와의 불화						
17	취미 및 클럽활동의 가입						
18	취미 및 클럽활동의 중단						
19	새 친구를 사귀게 됨						
20	계획했던 휴가를 못가게 됨						
21	이웃에서 위기 사건 발생						

22	부모의 죽음						
23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의 죽음						
24	신앙생활의 시작						
25	신앙생활의 중단 및 전환						
26	부모와의 심한 의견충돌						
27	가족과 함께 모임 및 대화의 시간이 줄어듦						
28	본인의 심한 질병 및 부상						
29	가족의 심한 질병 및 부상						
30	시력·청력·치아상태의 갑작스런 변화						
31	장래의 진로설정문제의 고민						

*** 다음은 일반적 사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V표 해 주십시오.

1.출생년도 _____ 년

2.학교 및 전공

① 대학교 ② 전문대학 (대학 소재 지역: _____ 전공:_____)

3.학년 _____학년

4.학과 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남학생_____%, 여학생 _____%5.

5.현재 동아리 활동

① 한다(종류: _____) ② 하지 않는다

6.종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7.거주상태

① 부모와 동거 ② 부모 외 가족과 동거 ③ 하숙 및 자취

④ 기숙사 ⑤ 기타

8.한 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8-1.이 중 술 마시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8-2. 귀하의 용돈 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9.귀하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9-1.있다면 그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조금 마신다 ③ 보통

④ 많이 마신다 ⑤ 매우 많이 마신다

10.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1.언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숫자기입)

중학교 ( )학년 / 고등학교 ( )학년 / 대학교 ( )학년

(상황: _____ <예> 수학여행)

12.술을 주로 누구와 마시나요?

_____

13.최근 3개월 동안 느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없음 0---1---2---3---4---5---6---7---8---9---10 매우높음

14. 현재 본인의 학업성적은 대략 상위 몇 %에 해당됩니까?

_____ %

15. 현재 학교생활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불만족 1---------2---------3---------4----------5 매우 만족

16. 현재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불만족 1---------2---------3---------4----------5 매우 만족

감사합니다

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Kim, Hyoj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Chae Weon**,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verify a hypothetical model to predict drinking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to explai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social learning theory and literature review.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depression, life event stress, femininity and college drinking culture.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drinking motive, alcohol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online questionnaire survey of 385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from August 3 to 22 2016. Data were analyzed SPSS 23.0 and AMOS 23.0.

A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is that depression, life event stress, femininity, college drinking culture, drinking motive, alcohol expectancy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fluence the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hypothetical model had total 20 hypothesized pathways and 13 pathways are suppor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was good with a score of 2.585 in the normed chi-square, .972 in the Goodness of Fit Index, .929 in the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063 in the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804 in the Normed Fit Index, .858 in the Comparative Fit Index, .389 in the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393 in the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419 in the 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The college drinking culture, drinking motive and alcohol expectancy were factors that had direct influence on the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depression, life event stress, femininity and college drinking culture had an indirect

influence through drinking motive and alcohol expectancy. However,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Exogenous variables and endogenous variables accounted for 41.5% of drinking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female college students should be screened for depression, life event stress, femininity, drinking motive and alcohol expectancy to understand their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reducing program should include contents of modifying incorrect cognitive factors as well as managing depression, stress. And it is needed to make desirable drinking culture in the campus.

Keywords: Drinking behavior, Female college students, Social learning the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2014-30136